朝鮮日報

社說

無能한 彭資政策

英米의 先例가잇다

一

日本經濟聯盟에서는 갈수록 深刻의 度만 보이는 目前의 恐慌을 打開하기 爲하야는 보다 더 有利의 方途를 究明코저 지난 二十五日 工業俱樂部에 閣僚招待會를 開催하고 犬養首相 高橋藏相 前田商相等의 出席下에 高橋藏相으로부터 恐慌의 打開策에 對한 演說을 試하얏스니 그 演說의 要旨를 一瞥한다면 金融機關의 統制와 通貨의 膨脹으로 依然財界의 潤滑을 圖하자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政友會의 積極政策의 實徹과 所謂犬養景氣의 再興을 圖하는데에는 무엇보다도 通貨의 增發로서 成果의 美를 내이것다는 것이 現政友會內閣의 財界觀測이고 따라 恐慌克服策이니 이 高橋氏의 財政策과 現政府의 經濟的見解가 今日의 慢性的인 恐慌의 現途程을 單純한 通貨의 增發로만 幾分의 打開를 보이고 따라 財界의 安定을 領得할지는 자못 疑問을 가지지 안을수업는 것이다

二

그러면 高橋氏의 財政策이 都是 엇더한 部面으로부터 恐慌의 因果關係를 指摘하고 金融機關의 統制와 通貨의 增發이 必要하다는 것을 力說하고 그것에 信念을 부치고잇는가?

一、銀行券發行制度가 오래前 것으로 今日의 事情에 適合치 못하야 産業의 振興을 圖키 難함으로 來臨時議會에 此의 改正案을 提出하겟다는 것과

二、通貨의 供給은 農、商、工等의 正當한 取引整理에 必要한 分量으로서 實質標準을 하야 健全한 通貨의 膨脹을 實現할 것과

三、財界의 缺陷은 金融機關에 統制力이 업서서 互相通絡을 缺한 點이다 即말하면 金融機關相互間에 充分한 協調가 保持되지 못하든 것을 今後는 互相協調하야 中央銀行과 地方銀行間의 資金의 融通이 圓滑케 하겟다는 것과

四、如斯히 協調와 連絡을 圖하야 不動産抵當貸權을 資金化식히자는 것과

五、貿易에 잇서서 國家의 管理 特定商品의 輸入禁止 輸入品에 對한 割當制度의 適用 國內生産品의 使用强制等을 行하는 同時 關稅의 改正까지 必要로 力說한바 以上各項에 亘한 現政府의 財政策은 財界의 觀察로서는 何等의 効驗性을 發見키 어려운 것이다

三

要컨대 前記高橋氏의 財界挽回策은 임이 米國 復興金融會社의 例로도 長荒한 說明을 要하지 안하고 아무 効果가 업슬 것은 雄辯으로 證明하는 바이고 또 現下의 恐慌의 實體에 미루어서도 到底 萬一의 克服을 보이지 못할 것이니 昨年 米國領 후버氏의 白亞館會議에서 提出된 金融會社는 資本金五億弗과 社債十五億弗의 發行權을 가지고 創立된後 農村救濟로서 五千弗을 融通하고 普通銀行、信託會社、其他金融機關、又는 休業銀行 鐵道會社等에 融資된 것까지 合하야 벌서 三億七千萬弗이라는 資金을 融通하얏스나 임이 貸付된 資金의 回收는 아직도 可望키 付할수업고 따라 物價는 依然落調만 보이고잇스니 그것의 模倣으로 財界의 挽回를 엿...

하는 것도 우수운 일이고 同時 關稅의 改正과 特定商品의 輸入禁止며 國內生産品의 使用强制等을 云謂함은 所謂國産愛用을 意味하는 것이나 國産愛用이란 것은 英國을 先例로 世界를 通하야 實効를 내이는 國家가 업슴을 不拘하고 그 異見으로 高調하고 强制하는 것은 財界에 悲觀의 材料만 提示하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消費大衆의 購買力沒落에는 紙幣만의 濫發이 何等의 効果를 내이지 못하고 內國商品의 强制獎勵로서 過剩商品의 騰貴는 너무나 通遞의 感을 가시는 同時 거기에 따두는 通貨의 膨脹는 業界에 混亂만 助成하는 것이다

日本意思에 反하야 特別總會開催決定

十九個國委員會案을 內議코저

注目되는 聯盟空氣

【東京二十八日發電通】 二十八日 「제네바」의 日本代表部에서 外務省에 到達한 電報에 依하면 十九個國委員會議長 「이-만스」氏는 二十七日 「도라몬드」總長과 協議한 結果 三十日午前 聯盟特別總會를 開催하기로 決定한 것으로 右總會에서 上海停戰問題에 關한 十九個國委員會案이 聯盟總會의 決議가 될터이다

【東京二十八日發電通】 上海停戰問題에 關한 十九個國委員會決議案中 第八、十一、十三의 三項은 日本政府의 絕對反對하는 바엿는데 去二十六日 秘密會議의 結果 第十一項 原案을 削除하야 「램프손」案을 採入키로 決하얏슴으로 政府는 此를 十九個國委員會의 決議로 하는限에서는 第八、第十三 兩項에 對한 反對는 不問에 附하고 承諾하얏는바 二十七日에 至하야 「이-만스」議長은 聯盟事務總長 「도라몬드」氏와 會談한 結果 離者兩三日中에 十九個國委員會를 公開하고 決議案을 正式으로 決定하고 總會에 報告함에 止하고 特히 總會를 招集하지 안켓다고 通告하얏섯슴에 反하야 突然態度를 變更하고 三十日 特別總會를 開하야 委員會案을 總會決議로 採擇키로 意見一致하고 其旨長岡代表에 通達하야왓다 總會開會를 決한 理由는 總會決議로써 日本을 拘束하고 또 萬若 日本이 總會決議에 棄權하드래도 決議를 有効케 함에 잇다 如斯하야 今總會는 日本의 意에 反하고 十九個國委員會案을 決議할 것은 明瞭하게 되엿나

小國側에서 또 策動開始

【제네바廿八日發電通】 日本은 十九個國委員會의 修正決議案을 無條件으로 承諾치 안으리라는 風聞으로 小國側은 三十日 又는 五月二日 開會豫定의 總會를 압두고 다시 策動을 開始하얏다

特別總會에 關하야 外務當局對策考究

出席拒否反對主張二途

【東京廿八日發電通】 外務當局은 三十日 聯盟特別總會開會의 報告에 接하고 對策講究中인데

一、總會를 無視하야 代表의 出席을 拒否하든지

一、代表를 出席식혀 決議案에 對하야 日本의 態度를 主張하든지

의 二途밧게 업스나 代表不參加는 不利함으로 結局 代表를 出席식혀 決議案에 對하여는

一、第八、第十三 兩項은 委員會案인 限不問에 附할수 잇스나 總會決議案이 됨에는 受諾할수업슴으로 反對投票를 하게 하든지

一、三月十一日 決議의 境遇 同樣으로 棄權케 하든지

一、總會와의 妥協을 考慮하고 留保的 承認을 하게 하든지

의 三方法中의 一을 採할 外 업스나 總會의 目的이 日本을 拘束함에 在한 限 代表로 하여금 어데까지든지 拘束을 拒否하고 反對投票를 할 外에 업나고 보고잇다

反對理由主張식히고 決議案表決은 棄權

日本政府態度決定

【東京廿六日發電通】 芳澤外相은 二十八日午後 外務首腦部와 三十日 聯盟總會에 對한 態度를 協議한바

一、總會에는 日本政府代表를 出席케 하야 上海停戰問題의 經過及十九個國委員會案에 對한 日本政府의 所信을 表明케 할 것

一、反對理由를 充分主張케 할 것

一、決議案表決에 當하야는 棄權할 것

... 大體方針을 決定 正式으로 總會案에 對한 日本政府의 ...

「스」長官歸國延期

英代表를 說服하야 日本壓迫코저

米代表部도 公言

【제네바二十日發電通】 目下 聯盟의 ... 「스」長官 ... 制動機가 되고잇는 것 ... 代表部로 하여금 强硬한 ... 서는 이 事實을 숨김업시 ...

大統領候補豫選 스미스氏當選

【포스톤廿七日發電通】 마사 ... 七日夜에 至하야 開票를 ... 結果 民主黨領袖 프뤼드 ... 가 거의 三對 一의 壓倒 ... 當選되엿다 今秋의 大統 ... 는 아조 「스미스」氏가 出 ... 엿다

天長節奉賀

總督府의 園遊會

今九日은 天長節임으로 午前十時부터 各學校에서 奉祝이 잇섯고 總督府에서는 第一會議室에서 奉賀式을 擧行하엿는데 午後에는 一時半부터 恒例에 依하야 景福宮에서 宇垣總督夫妻主催의 園遊會가 잇섯는데 千餘官民이 參席하야 盛況이엇다

盛大히 擧行된 昨日의 御誕辰

【東京廿九日後電通】 廿九日은 天皇陛下 第三十一回의 慶事시엇다 이 날은 天長節임으로 宮中에서는 賢所의 神域에 崇嚴한 御祭典을 올니고 代代木練兵場에서는 空陸兩軍의 壯烈한 觀兵式、又 豐明殿에서는 正午 內外人의 臣僚約八百名을 부르사 光輝잇는 御宴을 베프시엇는바 種種의 盛事에 이 佳日을 마지엇다

露國에 嚴重抗議乎

日本軍用列車顚覆事件으로

外務軍部意見一致

【東京二十八日午後一時三十五分電通至急報】 去十三日 哈爾賓地方에서 日本凱旋列車顚覆事件에 對하야 外務、軍部兩當局에 達한 情報에 依하면 事件은 「하바로프스크」에 잇는 露國官史共産黨員의 陰謀인 것이 判明되엿다 따라서 兩當局은 다시 愼重한 調査를 行하야 調査의 結果如何에 依하야서는 日本陸軍將兵에 與한 損害에 對하야 쏘베트政府에 嚴重抗議하는 것이 至當하다는 意見이 一致되엿다

中國側信用코 日本側寬大態度

中軍駐屯地問題에 對해

【上海廿八日發電通】 軍事小委員會에서 決定하지 못한 浦東、蘇州河以南의 中國軍駐屯地決定問題는 이미 中國側이 浦東에 中國軍을 駐屯식히지 안키를 言明하고 또 現在駐屯地에서 一步도 前進치 안키를 確約하엿슴으로 此點은 中國側의 言을 信하고 寬大한 態度를 取하고 協定成立을 促進하기로 決定한 模樣이다 이것으로 協定成立을 妨害하는 障害는 一掃된 모양이다

中軍駐屯地問題도 互讓으로 解決乎

【上海二十八日發電通】 田代少將은 本日英總領事館에 英國武官 「-힐」大佐를 訪問하고 中國委員黃强亦夕刻同大佐를 訪問한바 兩者共히 中國軍駐屯地帶에 對한 意見을 英國側에 述하얏는데 停戰交涉最後의 難關도 日中雙方의 互讓으로 無事解決될 模樣이다

調印은 留保 日中兩方滿足

日中代表最初의 握手

【上海廿八日發電通】 非公式停戰會는 午後五時五十分 散會한바 二十七日의 起草委員會에서 決定한 案을 램프손公使가 朗讀하고 逐條的審議를 한 結果 一、二點의 加除를 하고 此에 對하야 日中委員은 滿足의 意를 表한바 調印은 此를 留保하고 散會하엿다 重光公使는 散會後 郭泰祺와 今次의 會議以來 最初握手를 하엿다

協定全文完成

◇……重光公使談

【上海二十七日發電通】 今日(二十八日)의 非公式會議는 起草委員會가 (一)、(二)項 修正한後 取後的起草를 完하야 停戰協定全文은 完成을 보게 되엿고 委員會에 남은 問題도 잇스나 小委員會는 本會議에 合流할듯하다 한다

假調印은 本會議로 延期

◇……郭泰祺談

【上海廿八日發電通】 草案이 된 今日(二十八日)의 會議는 正式停戰會議가 아님으로 假調印은 本會議에 미럿다

政友幹部會서 山本農相說明

【東京廿八日發電通】 政友會는 二十八日午後二時 定例幹部會를 開하고 山本農相의 米貨生絲處 ...

顧維鈞問題 圓滿解決될듯

日本側의 調停으로

【長春廿八日發電通】 顧維鈞의 入國問題에 對한 滿洲政府의 態度는 强硬함으로 日本側에서는 二十八日朝來 外務省의 意를 取하야 長春領事가 다시 調停으로 緩和에 努力한 結果 滿洲國의 態度도 互讓的으로 好轉하고 漸次解決의 曙光이 보이게 되고 田代領事는 外交部와의 折衝顚末을 日本側에 報告한바 잇섯다 그리고 右에 對한 滿洲政府의 意向은 滿洲國獨立의 尊嚴을 冒瀆치 안을 絕對的 基本條件으로 하고 萬若 이에 背致함과 如한 境遇에는 時와 場所의 如何를 不問하고 直時 逮捕監禁할 用意잇는 것을 留保하는 것이다 그리고 滿洲政府는 中國參與員은 公私間 要路와의 會見은 勿論 入國以來의 行動은 一切 第三國監視에 힘것을 附帶條件으로 할것을 希望하고잇는 模樣이다

佛蘭西代表 日本主張에 呼應

潛水艦은 攻擊武器아니라고

軍縮海軍委員會서

【제네바廿八日發電通】 日本 海軍委員會에서 佛國代表 「뒤몬」氏는 潛水艦은 攻擊的武器가 아니라고 佛蘭西의 主張을 高調하고 日本의 主張을 呼應하얏다

協定成立을 기다려 二週以內歸國

「램프손」公使

【上海廿八日電通】 「램프손」英國公使는 停戰交涉停戰後 中國側의 希望과 本國政府의 訓令에 依하야 勝戰協定期하고 잇든바 이미 日中間의 意見도 一致되고 調印을 待할 뿐으로 되엿슴으로 近近協定成立을 待하야 二週間以內에 北平을 經由로 歸國키로 決定하얏다

非公式으로 協定草案討議

停戰會議는 順風인듯

【上海二十八日發電通】 郭泰祺兩日中代表、英米光公使、伊西四國公使는 二十八日午後三時 英總領事館에 會合하고 突然非公式停戰會議를 開하고 二十七日 協定案起草를 行하엿다 兩軍當局 參謀情報司長、英公使館參事官이라 한다 「이하만」氏도 參加하야 協定草案의 討議를 開始하얏다 同日의 會議에서는 日中間에 未解決인 「-」을 除한 外는 全部最後的協定案의 字句修正及審査를 行할 模樣이라 한다

... 分案에 對한 說明 ... 當局으로는 모든 經過에 充分考慮 ... 商會는 商人的立場으로도 此際價格을 引下하야 ... 利益을 엇을것가 ... 또 此際分에 依한 新舊의 出廻時期까지는 ... 한다고 說明하엿나

日本軍撤退期 明示는 完全消去

修正案第四條附加事項으로

中國新聞은 一齊非難

【上海二十八日發電通】 昨日의 停戰協定起草委員會에서 修正하여 第四條中에 새로 附加된 部分은 萬一 日中何者든지 協定의 履行을 妨害할 時는 混合委員會는 當事國에 注意를 喚起함 ... 中國이 頑强히 主張한 日本撤退時期의 明示其他는 形跡도 업시 消去되엇슴으로 今日의 中國紙는 一齊히 此點을 非難하는 一方 英字紙는 램프손公使案承認은 日本의 外交的勝利라고 稱讚하엿나

室○團長 宇垣總督訪問

正式으로 凱旋人事

昨日凱旋한 室○○團長은 二十八日午後一時 佐伯參謀長以下幕僚九名을 帶同하고 總督府에 宇垣總督을 正式訪問 凱旋人事를 하얏나니 宇垣總督은 今井田總監各局長과 가티 總督室에서 此를 맛고 ... 感謝를 表하얏다

山梨大將一行 五月一日夕入京

奧鎭守府司令長官 山梨大將一行은 平壤海軍鑛業部檢閱로 五月一日 午後七時着列車로 入京한다

八面鋒

○ 예조흔 봄철에 興이 인 人生이라 조흔곳 낫븐곳 이리저리를 다니는 모양이다

○ 各地로서 들리는 바 봄달아出家한 消息 길일흔 어린이 찻는 廣告 靑少年間의 風氣紊亂의 소리가 거의 나올 새 續하는데

○ 湖南어느 地方에서는 남의 閨範이 되리만한 靑婦人 一行이 와에 通大道를 하려든지

○ 술을 數升식이나 마시고 長談치고 노래하며 큰걸음을 하는통에 나들이 바 男子들이 괴금을 하얏다나

○ 그야말로 花發多風雨한 時節이라 別風雨가 다 이는 모양이야

○ 多心한 사람으로 이소리를 듯고는 딱하다 못하야 痛哭을 할 地境

本報押收

本報四月二十九日附 第四千七十六號는 記事中 當局의 忌諱에 抵觸되야 押收를 當하엿슴으로 該記事를 削除하고 號外를 發行하엿삽기 玆에 謹告하나이다

朝鮮日報社

京濱驛傳에優勝한 養正軍堂堂凱旋

廿八日夕京城驛着列車로 柳海鵬君以下元氣旺盛히

驛前에는出迎者數千

목상(國士王)의왕자(者)! 어젠신호간(阪神)역전경주에련산회의우승을하야일본관서(關西)지방에서는이미압도적으로군림하야그명명을이날리엇든우리양정고보(養正高普) 선수들은다시동경에서열리는 동경횡빈간(東京橫濱間) 역전경주(報知新聞社主催)에 단연몸날반한기록으로 우승하야이제 그무훈(武勳)은전일본중학생계에 조선인중등학교를 대표적으로만장의기염을 토하고이십팔일저녁경성역도착렬차로감독서생이거느리고 그들의 사는 당당히 개선하엿다 이날이를개선용사들을 맛기위하야역두에는 양정고보학생과직원동창회원들을 비롯하야조선체육회 대표기타각방면의유명한인사가 다수히마조나가잇섯다 이욱고 렬차가품에들어오자렬자속에서 는선수들이창밧그로내둘으는 영광의우승긔와 응원긔가뵈이자역두의군중들의 입에서는뜻하지안코일시에 환호하는감격된만세소리로 역구내를뒤흔들석하게 하엿다 선수들은고달픈차음과려행에 조금도피로한그색이업시오 히려원긔왕청하야차에서 뛰여나림ㅅ애이들을에워싸은 환영객들은서로손을 붓들고억오! 잘싸웟지! 하는 한마듸를흥분된얼굴에는감격의눈물이 흐리워날이안나가고 잇섯다이가티하야취음을천하야(일본전동지방엔)과거십이년간일본각지로 전전하며승리를자랑든명예의 우승긔는우리양정군의손으로백화만발한이반도강산에 옴기어멀리현해탄(玄海灘)건너일본황년 선수들로하여금경이적존성을표하게만들엇다

凱旋選手先頭 市街一週行進

市民歡呼聲震動

양정의개선은 조선의 깃븜이엇다 개선군이 역구내에서나오자 역전에는 또한양정고보 학생군과가티 다수의군중이 기다리고 잇섯다 학생들은 옷깃을단정히하고 조선소년군의 류량한「개선나팔」소리와가티 우승긔를밧들고 나오는용사를 맛고잇섯다 잠간 한자리에모히어 학생대측대표와 동창회측대표로부터 승전을축하하는 한말을보내자 선수측으로부터 또한 이에답사가 잇서 간단히서로 반갑은뜻을표하고 일행은 소년군의나팔수와 천하무적 양정군이라는 응원긔며,우승긔,화환과가티선수들을선두로하고 학생들은 장사의진을버리어 교가와 응원가「에일」을 고창하면서일단은봉래정으로향하야 태평통으로돌아서 황금정으로 종로를돌아 황토현마루까지 이르럿다 이가티하야 거리거리로 행진하자 양정학생들의 의긔충천한바드 장하거니와 가로의행객이며 상점사람들도 저마다천두에발을멈추고 개선을축하하는 박수갈채를보내여 이날밤의 장안대로는완연히「양정개선데이」가되고말엇다 목이터질듯이「만세만세」를 고창하고 한바휘돌은 양정학생들은 황토현광장에와서 다시만세를 또삼창하고해산하엿나 때는여덟시 이십분경 고요한봄밤의 맑은별빗은더구나이들의 개선을 축하하는듯하엿다

徐雄成監督 作戰과感想談

남모를苦心가지가지

감독서웅성(徐雄成)씨는그간경과에대하야『우리의힘도힘이려니와여러분들의 응원으로 긔대에버서나지안코 우승한것을 깃버합니다』고인사하고 알에와가티말한다

우선우리는싸움을안두고다만자중(自重)그것을첫신조(信條)로하엿습니다 십육일밤 경성을떠나서 동경(東京)에 도착하기는 십팔일오후네시사십분이엇습니다 지구신앵전정(芝區新櫻田町) 유신(有信)려관에들어편히하로밤을쉬이고난 십구일에는 오전에 경주구간(區間)을 선수들과 가티왕복을하야 일일이지시하고목표(目標)를정해두고밤에도뇌속이쉬이고이십일에는아츰 열시에 전(轉)코ー쓰」에대하야 첫던습을하엿습니다 그결과 선수에게는 섭네로 가르치고 나혼자계산한 시간으로보면 종래긔록이세시간오십분구초(三時五〇分九秒)이엇는데 우리는 세시간오십칠분이엇습니다 이것을보면우리다리를 기위한가벼운 던습이엇든것으로 보아 긔록으로는넉넉히자신을가질수잇다고생각하엿섯습니다(물론 올해권부터 우리선수들실력이상당한데 다가 평한자귀이한첨에또잇섯지만) 그러고다시이십일에는 다소속력을내어 다시전 코ー쓰를 달리게되엿는데 이날도 선수들은그 …… (三時五分) …… 자신을가지게되엿는 …… (孫基禎)군은 종래의 긔록을 깨트리어 삼십칠분 십사초의 새긔록을지엇습니다

練習의結果 自信이確實

어가려하야 점점자신을 가지엇섯스나 우리는『자중』할것뿐으로 선수에게는 일체 긔록을알리지안코 만연 주의 만주고 잇섯습니다 그러고 이십이일에는 전부가 기달은 코ー쓰를 잡어가버운면 습을 하고 이십삼일은편히쉬엇습니다이동안우리는밤은 늣게지전에자고 아츰은어서시에 깨일것을 엄숭히직히고 또시내구경도 일체아니하고 려관이외에는 근처일비곡공원에 산보하얏슬뿐 조금도 외출치안엇습니다 이것은나의감독보다도 선수자신들의 자중이 더힘이만엇습니다 그러고음식도조선식『고초장』『콩장조림』가튼것도 각가준비하여가지고가서 육식물의조절에도 힘을썻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강적인긔옥사범(埼玉師範)의련습긔록은 엿둘으니네시간사분사십오초다하야 긔록으로는일층자신을가지엇섯습니다

苦心焦操하든 決勝日이到來

과연 이십사일 싸우는날을당하엿습니다 보지신문사압헤는 수천의군중이 모히어 저마다응원을하고잇섯습니다 그중에 우리를응원하는 조선학생,횡빈로동자들의 힘잇는목소리를 만히들을수잇슨것도 우리에 큰힘이되엿습니다 그리고 응원단부서원에서는 화물자동차에 응원녀를 실고 야단하는것들도 잇섯는데 코 놀라지안을수 업섯습니다 그런데요행 이날비가 내리엇다 그런것은 퍽조왓습니다 날이쨍쨍하면 더운긔운이올러서 오히려피곤하나 이점은조선이 조왓습니다 열시정각,이때회이쉬팔개교중의 맹상봉도사범(豊島師範)과옥사범(埼玉師範)식민무역어학(殖民貿易語學)등의강적과억개를겻고 제일구남승룡(南昇龍)(一九歲二年)군이 달리엇습니다 약사마원(四里)품천(品川)철교까지는 오십미돌(米)을압서자 그뒤에는 천긔세학교가서로 억개를겻고달리고 잇섯습니다 그러다가 제이구에들어갈때에는 이백미돌 이분가량을떨구잇습니다 이때의 련선의응원은 우리조선인뿐아니라 그곳사람들도 우리를만히도와 응원하엿습니다

第二三兩區 斷然히리드

제이구 김유수(金裕洙)(一九歲四年)군은 다소약한듯하엿스나 역시이백미돌는 압서게되여 사백미돌을 압서게될때에 제삼구 김국래(金國來)(一九歲四年)군이 달릴때는 풍도사범에서 추격하야 이백미돌을걷근하며 왓습니다 이때에즐기처 내리든비도 가늘게 내리어조건은더조왓습니다 여기에 횡빈공원에서『파톤』을바더들고 돌아오게되는 제사구 조인상(趙寅相)(二〇歲五年)군는배권의용긔를다하야 배후의 추격전근을다녀볼니치기에 힘썻더니 그걸과약일마일가량압서게되여 제오구손긔정(孫基禎)(一九歲一年)에이르러서는 다시반마일을압서일바일반은 압서게 되엿고제육구류해봉(柳海鵬)(二一才五年)에이르러서는이마일을압서총긔록으로이분삼십초를단축하게되여당당히 신긔록으로 우승하게되것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유감이든것은 륙구에서 최후로동경시가에 들어가서 전력을다내이고 잇슬때에 륙군악대의대행진을반나 이때는 심판자동차도못보는 동안에 약일분간는우둑허니 서잇다십피하야 큰손을보게되엿든것입니다 그러나 신긔록으로 이긴것은 더깃붐니다 특히우리의작전으로서는 관동선수들는 최초에 압서기를힘쓰는뒤에떨어지면 힘이 약하여진다는것을알고 우리도 첫코ー쓰에 힘써서 더힘썻든작전도다뜻가지 되엿든것입니다 그곳의평이요 이것은녑어우리의 자랑갓습니다만은 그들는 다만놀래일뿐이고 만히칭찬하면서 체격도조코달리는『폼』도련습도조와단련데학선수에 지지안으리라고 가평하여좁되다 이것도평소의 우리의련습과 동시에여러분의 덕으로승리를어든것입니다

◇昨夜凱旋한養正軍歡迎光景

라듸오 四月三十日

▲午前十時三十分氣象概況各地天氣實況 十時四十五分料理科目日用品時勢 同十一時五十九分正午時報ニュース 運動競技(A)京城實業聯盟리ー그戰試合狀況 ▲午後四時A分ニュース公示事項 同五時四十五分라듸오體操職業紹介事項當夜프로그람 同六時○分어야기(A) 同六時三十分라듸오學校 同七時○分ニュース公示事項翌日프로그람發表 同七時三十分畜牛의밤 同九時三十分時報(A)氣象概況各地天氣實況소프라노獨唱

제힘 (4)

二等當選長篇小說 金殷卿作 安碩柱畫

아담파이브 (四)

『잘엇서는어느날애?』해룡이가 물엇다 청진이와안라시온근심성(勤愼)은 헙더것나 그리고 생긔가나서 『스무하루날』이십삼일애요『유패하다는 한숨커럼대답을수엇다 두사람은 이야기할시간을잡앗다 『아버니(목사)께서 오시겟구면요?』 『네ー 오신다구 편지하셧서요 아버지는십삼일에오시구 어머니두 이십일엔오신다구요』 『……줄님의신후엔 일본을가시겟죠?』 『글세애요……도모지 예산도업는것을 간다구만햇는데 간번에 아버니가오섯슬때두 선교사를보구 죽릿시만,들어주는것갓지를안아요!……아다갈수……』 더문밧게서『에헴!』하고 기침소리가난다 두사람은 가닥업시 웅질하고놀렛나 그리고 무엇때문에 놀랜것이냐고

으로서잇느냐? 젊은사나이 그렁게젊은녀자ー 그하나가 아들이라면 귀여운애 가리워진 무례한생각ー 이내아들며누리……」혼자생각이 여긔까지갈때에 전세로서는 용납지못할 그무엇을범(犯)한것이엇다 마음이옷득이지안을수업것다 그러다가『부엇ー그런마음이 들어갓기루…』하고 혼자우섯다 청진이가오라고한 아들잇는편으로갓다 『주인 아주머니는 안계신가요?』 『어듸일가집에 가셧서요』청진이가 친절이대답햇다 『영옥(英玉)이가씨는?』하고 주인의딸을 찾것다 『더리고가셧죠』하고 재당수 수격기처럼 묻답햇다 해룡이부친은 주인들이업는것이 마음에호젓하고당햇다고 빙그레우스면서 신문시에무엇을우무려들고온것을 퇴스마두에

서로바라보는 눈과눈이마주치면서 젊은두얼굴에 홍조(紅潮)가 밀어올랏나 울언이써젓다 해룡나는 웃죽일어섯다 청진이는 그일어나는 의미를의심햇다 머뭇ㄱ안에 해룡이부친이 나타난다 해룡이는 자긔의입으로는들어오라고할형편이 아니어서바라만보고 발만자국을압흐로내노하 그뜻을표하얏다 청진이는 모든것을 알아채리고 마루에나려오면서 『어서오세요!』하고 신을신고 마주멋걸음갓다 그래서해룡이와 청진이의 두억개가서로멀지안엇다 『바ー』하고 들어오는 해룡의부친은 정면으로 바러볼때에 젊은두사람이 나란이서서자긔를맛노라고 몸을가리 압흐로움직이는모양이눈을놀렛나 착하고얌잔도하려니와 사십여명동급생중에 청적이제일뛰어나고 한참피는모란커럼 욕심나게빌용된 귀여운처녀청진이는 웃는얼굴에 이글이글타는듯하고 준수하고 늠늠한긔상이 만군지중(萬軍之中)에서 승건가를지휘하는듯한 해룡이되래도는 뛰는듯하얏다 보는눈이 황홀해질 사이에 『저것이 내아들의천세는 어떠케저러케 황홀한모양이구나』!

다갓코 거레조희를벗겨서 구기구기해버리고는 속에든조희주머니를 한편만반씀 쐬젓나 그속에는 과자가 한근은실하게들고 사과여러개가들엇다 『아이 그건 무얼커러케 만히사오셧서요?』 하고 청진이는 남보기족케 반가히 덥썩안는것커럼 두손으로 그우에올려노앗나 그마음에는 해룡이를 위하야꼭도다행햇다 해룡이는 또한청진이 매접이잘되여서 다행햇나 세사람은 마루로올라안저서 이야기 서로권하야먹어가면서 그들은 한가족가티어울어젓다 그들의 분이 넘첫다 이자라ー 천세와 그아들해룡이가 귀인청진이와 간격이 나차별이업시 가티안질수잇는 이자리는 이때까지 굿세게싸와온 그부자(父子)의자리가분명하다

허욕(虛慾)(一)

사랑과평화가 가득한가운데에서 청진이와해룡이부자가서로떠나기를악기어해가서쪽으로 기울어질때까지 자미잇게이야기하고잇섯나 하오네시나되여 해룡이부자가돌아가기를 매우섭섭해하얏다 그러나구라며 만류하지는안앗고 해룡이부자도 그뜻을잘리해햇다

土地坪數割問題로 麗水邑會大波瀾

甲論乙駁으로兩派가對立 會議는畢竟中止돼

【麗水】 지난이십오일오전십시반전남려수읍 全南麗水邑사무소회의실에서는 읍의회(邑議會)가개최되엇다당일의 의제로는금년도호별세부과액의결의건(戶別稅賦課額議決의件)과특별세토지평수할부과총액의결의건(特別稅土地坪數割賦課總額議決의件)이며읍유지관리에관한건(邑有地管理에關한件)등인바이날의파란을피키위하야읍당국자는미리수일을두고소위읍의원타합회(邑議員打合會)를거듭하엿섯스나 하등효과를 엇지못함파동시에 이십사일에는 읍당국자의 무용한고집으로 조선인의원전몰가 출석치안하야 류회되어버리고 당일정식의회는 리종완(李宗元)대총(大塚)양씨의출라와근등읍장(近藤邑長)의광주(光州)출장으로 부읍장(副邑長)이 개회를 선언케되엇다

可否同數로 朝鮮人議員退場 再開키로하고休會

별항읍회는 벽두부터 파란의거괴압이 돌기시작하면서 의사를비밀히 진행하자는 편과공개하여도 조타는 양편이이서장시간힐난하다가 경우에의하기로 결정한후 몬저간단한 문제를재결키위하야 역순(逆順)으로 읍유지자관리의건을 일사천리로가결하고 다음 특별세평수할부과문제에 드러가 박윤래 김경택(朴允來、金景澤)의원으로부터총평수(總坪數) 일만칠천딸배 오십일평반에대한 도면(圖面)아의안(議案)이불비되어 알수가업슴으로 맹목적결정은 못하겟스니 도면을 첨부하기까지보류하자는것을 주장하였다 이와가티정당한 주장이잇슴에 불구하고 의장은덥퍼노코 원안에찬성하기를 간원하엿스며 이에모모(某某)의원등도 찬성한다고하엿다 로천봉(魯千峰) 정재익(鄭在益)의원제씨는보류론을절머지지하야 가부동수로되엿든바의장의구구한설명이잇슨후재결을선언하자장내는험악하여지는동시에보류파의원은정당론을부정하는 회의에는 참가할필요가업다는것을 선언하고 동십이시반경 퇴장하엿슴으로 회의는중단 되엿슬뿐아니라 근등읍장의 대책을기다려 다시결정키로한후산회하엿다한다

具冀膺二圓 具學僧二圓 金詰夏一圓 鄭哲根二圓 李丙益一圓 具滄膺三圓 具然膺三圓 尹錫昶一圓 鄭聖根二圓 具命膺二圓 鄭東秀一圓 梁長碩一圓 韓洲奎一圓 崔義昌一圓 李昌斐一圓 以上九十七圓也

一萬五千圓으로 平澤市區改正

金郡守의活動으로

【平澤】 진위군평택(振威郡平澤)은권조차에멋재아니되는곡놉산지로일년에이십여만석가량이나 수출되는 역(驛)을컨령한 서가지로서 모혀드는주민은날로 늘어 주택난이심하며 따러서 시가지가 협착하야 발전상 유감을 늣기일뿐이요 유의막급으로 군면간 항상토의만하여오던바 금번신임한 군수김진만(金鎭致)씨는시가지의발전책을염두한결과 도지방비(道地方費)로사천원보조를밧고평택면으로 일만사천원을 차입식이여시가지 복판에잇는 용지(龍池)라는땅머한연못을메우고또는시가지통로를개축하기로결정하야불일간 착수할 모양인데이에따러서 평택은 권에못보든훌륭한시가지로 변하여 발전지가될모양이라더라

周基洛君被檢

(전략) 난이십일 오전십시경에 ... 사건의내용은 알수업스나 ... (본문 일부 판독 불가)

一萬四千餘圓의 護岸工事着手

車鍾彩氏의努力으로 康津窮民救濟事業

【康津】 춘궁에먹을것이업서 해초(海草)와송피(松皮)로그날그날을 사러나오는 수백여극빈자들을구제키 위하야 전남강진백금포(康津白金浦)차종채 (車鍾彩)(뫗)씨는자비백여원을드려가면서 총독부 또는도당국에 몃번이나가서 궁민구제로백금포호안공사 (白工事)를작수케하여달라는교섭을 하야 오든결과 월오일부터 공사에 착수케되엿다는데이케 그내용을 조사한바에의하면 전기 차종채씨가도당국에 교섭한후 전남보청(全南寶城)고영조(高榮組)가총공비일만사천 딸백원에 청부하야지난삼월 오일부터 매일인부

擧洞一致하야 學院을建設

援助金도相爭喜捨

【竹山】 한비곤난과학령초과동으로한야 취학의길이차단(遮斷)된수만흔 아동을위하야 룡인군외사면 석천리(龍仁郡外四面石川里)에서는 전동(全洞)백여호가 협력하야 오래동안이나 숙제(宿題)로잇든 석천학원(石川學院)을 건설하기 위하야 재목등속을각각내여가지고금번원사(院舍)를건축하고당국에인가를신청중이라는데유지방책은동민일동이 약십두락되는 토지를공동경작하고 경비상 곤난이생활에는 보충하기로 결의되엿다 고하는데 이소문을 들은인근각처에서아래와가티원조금을자진긔부하야 동학원의 장래를축복한다 고한다

義捐者氏名

鄭行錫十圓 鄭泰奎十圓 具雷書十圓 李澤用二圓 朴戴龍二圓 崔哲淳一圓 具然權一圓 崔鎭淳一圓 沈鴻澤二圓 朴庸善一圓 宋東璽一圓 李舜九五圓 具勳書十圓 李鶴用三圓 李晶源二圓 具龍會五圓 李鼎九一圓 閔起煥一圓 具滋元二圓 朴漢慶一圓 尹玫憲一圓 朴相純一圓

木浦市民運動 大會任員決定

【木浦】 목포시민운동회주최와 본보목포지국 후원으로 오월 대성동(大成洞)공설운동장(公設運動場)에서개최되는 남녀시민대운동회는 ... 차박두하여 ...

咸北朝鮮共産黨 豫審決定書全文 (五)

舍音식혀준다고 三百餘圓騙取

慶尙某銀行員의處事

婦人이作隊하야 市街에서酒酊

◇……춤추고노래를불너 寒心한井邑婦人네들

乃文面事務所 倉洞里로移轉

自動車行通코자 關係當局에陳情

金浦郡陽谷市民들이

牛車가轢人

假僧侶橫行 金品騙取

弓術大會準備